

## 상업은행의 대부원천타산과 리용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영련

###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예금과 대부, 결제방법과 리자률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자체의 자금원천으로 해당 지역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수지균형을 맞추며 화폐가 은행을 중심으로 원활하게 류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기관,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공간인 대부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대부공간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자금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과 건설을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진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기관, 기업소들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화폐류통의 안정성을 보장할수 있다.

대부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지난 기간 대부원천타산과 그 리용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대부제도》, 《대부조직과 방법》, 《은행전서》 등 많은 도서들에서 언급되였다.

상업은행들의 대부원천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유희화폐자금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업관리, 경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실리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현시기 상업은행의 대부원천타산과 그 합리적리용이 가지는 중요성은 무엇보다먼저 생산을 정상화하고 기업체들의 경영관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상업은행의 대부원천타산과 그 합리적리용은 우선 기업체들에 생산조건을 보장해주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한다.

기업체들이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기업체들이 생산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자면 생산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업체들의 생산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휘기능의 수행과 함께 기업체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원만히 실시하도록 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대부는 기업체들의 계획적인 생산활동,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생산조건을 보장해주는 경제적공간의 한 형태이다.

대부가 사회주의기업체들의 계획적인 생산활동,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하는것은 그것이 생산정상화의 중요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모든 물자재산의 운동이 화폐자금의 운동을 동반하는 조건에서 기업체들에 대한 자금보장은 생산정상화의 중요조건으로 된다.

사회주의기업체들에 대한 자금보장이 생산정상화의 중요조건으로 되는것은 생산정상화를 위한 원료,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수요가 날로 높아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기업체들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영권을 가지고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생산을 확대발전시켜나가고있다. 이로부터 기업체들사이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물자교류는 더욱 활발해지고있으며 화폐자금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날로 늘어나는 화폐자금에 대한 수요는 생산기간이 비교적 짧고 자금순환이 빠른 기업체들에서와 생산기간이 보다 길고 자금순환이 오랜 기업체들의 생산정상화에서 다같이 제기되고있다.

생산기간과 자금순환이 오랜 기업체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기술경제적특성과 생산조직 및 방법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재산의 순환과정에 놓여있는 미성품, 완성품의 비중이 크며 이로부터 보다 다양하고 방대한 생산용물자들이 련속적으로 투입되게 되는것으로 하여 많은 화폐자금준비와 지출을 요구하고있다. 그리고 생산기간이 짧다고 하여도 계절적으로 원료, 자재와 같은 생산용물자들을 대량적으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업체들에서의 화폐자금준비도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로부터 기업체들의 생산기술적특성에 맞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부는 모든 기업체들의 생산기술적특성에 맞게 날로 늘어나는 화폐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으로써 생산의 정상적인 발전을 자금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대부원천을 정확히 타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기업체들에 대한 대부를 늘여나가는것은 기업체들이 생산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으로 된다.

상업은행의 대부원천타산과 그 합리적리용은 또한 기업체들의 경영관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기업체들이 경영활동에서 경영상 상대적독자성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맞추며 그 결과에 대하여 기업체가 책임지는 조건에서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보장해주는가 하는것은 기업체의 경영관리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는 사회주의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는 자금보장형태이며 방법이다. 그것은 대부가 가치형태의 리용에 기초한 자금보장방법이기때문이다.

대부는 반환적인 자금운동형태이며 반환할 때 리자가 첨부된다. 대부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기업체는 대부금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이루어진 화폐수입으로 원금과 함께 리자를 물어야 한다.

그러자면 기업체는 생산을 늘이고 원가를 낮추어 더 많은 사회순소득을 창조하여야 한다.

대부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강화, 재정계획과 생산계획의 수행 및 초과수행, 절약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화폐적공간으로 작용하게 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부원천에 대한 정확한 타산에 기초하여 기업체들에 대한

대부를 과학적으로 해나갈 때 기업체들에서의 경영수준을 높이고 기업책임관리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게 할수 있다.

현시기 상업은행의 대부원천타산과 그 합리적리용이 가지는 중요성은 다음으로 유휴화폐자금을 적극 동원리용하여 나라의 통화안정을 보장하게 한다는데 있다.

대부는 은행의 주요업무의 하나로서 대부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은행들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화폐류를 공고히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통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상품생산 및 보장, 통화조절, 원활한 현금류를 보장하여야 한다.

현시기 상품생산 및 보장, 통화조절, 원활한 현금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는 유휴화폐자금을 적극 동원리용하는데 있다. 그것은 유휴화폐자금의 동원리용이 상품생산 및 보장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게 하는 보충적원천으로 될뿐만아니라 추가적인 화폐발행이 없이 류통에 필요한 현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게 함으로써 화폐류통의 원활성을 담보하는 경제적공간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유휴화폐자금의 동원리용은 상업은행의 업무를 통하여 실현된다.

상업은행은 유휴화폐자금을 자기 수중에 집중시키고 그것을 리용하는것을 기본업무로 하고있다.

오늘 유휴화폐자금의 은행에로의 집중과정은 새로운 금융관리체계와 방법에 따라 더욱더 촉진되고있다.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이루어지는 현금을 은행에 집중시키고 리용할수 있게 기업체들에 돈자리가 개설됨으로써 저금뿐만아니라 은행돈자리와 재정회계에서 벗어나 움직이던 많은 유휴화폐자금이 은행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유휴화폐자금이 은행에 집중되고있는 조건에서 유휴화폐자금의 동원리용은 통화안정에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은행이 집중된 유휴화폐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기업체들의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대부로 보장해주게 되면 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업체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 류통중화폐자금의 은행집중과 은행에로의 환류속도를 촉진시키게 된다.

그리고 추가적화폐발행이 없이 동원된 유휴화폐자금을 적극 리용하여 상품생산에 필요한 화폐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주게 되면 상품생산량과 현금류통량과의 일치성이 보장되어 화폐가치가 안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유휴화폐자금의 동원리용은 나라의 통화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론문에서는 선행연구성과들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중점을 두었다.

론문에서는 우선 무현금대부원천과 현금대부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데서 나서는 방법론적문제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또한 대부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 2. 본론

### 2.1. 대부원천타산

현시기 상업은행의 대부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대부원천에 대한 타산을 과학적으로 하는것이다.

대부원천타산을 과학적으로 하여야 그에 기초하여 대부계획을 바로세울수 있으며 대부사업을 능동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된다.

현시기 상업은행의 대부원천타산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무현금대부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이다.

무현금대부원천을 정확히 타산하려면 무현금대부자원총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무현금대부원천에 대한 타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무현금대부원천타산에서 대부자원총액계산을 선행시켜야 하는것은 무현금대부원천이 바로 대부자원총액으로부터 계산되는것과 관련된다.

대부자원은 은행이 자금유통을 위하여 자기 수중에 집중하고있는 화폐자금이다.

해당 시기 돈자리잔고에는 은행자체무현금잔고, 국가예산돈자리잔고, 기관, 기업소돈자리잔고 등이 포함된다.

무현금대부원천타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국가예산돈자리자금잔고와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잔고를 바로 타산하는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자금들이 신용자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돈자리자금운동량변화가 많은것과 관련된다.

무현금대부원천규모를 바로 타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국가예산돈자리자금잔고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는것이다.

무현금대부원천으로 타산할 국가예산돈자리에 남는 화폐자금에는 국가예산적립금과 국가예산집행과정에 은행돈자리에 상시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수입초과액 등이 있다.

이러한 자금들의 규모를 타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계산시기 실적자료에 기초하여 하루평균돈자리에 남아있는 잔고를 계산하여야 한다.

$$C_{\text{실}} = \frac{\sum_n \left[ \sum_{i=1}^{360} (C_{i\text{잔}} + C_{i\text{수}} - C_{i\text{지}}) \right]}{360n}$$

여기서  $C_{\text{실}}$ 은 하루평균국가예산돈자리자금잔고실적,  $C_{i\text{잔}}$ 은 전날 국가예산돈자리자금잔고,  $C_{i\text{수}}$ 는 매일 국가예산수입실적,  $C_{i\text{지}}$ 는 매일 국가예산지출실적,  $n$ 은 년도수이다.

하루평균 국가예산돈자리자금잔고규모를 계산한 다음 여기에 해당 시기 국가예산수입지출규모의 증감을 비롯한 국가예산돈자리자금잔고의 변동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해당 시기 국가예산돈자리자금규모를 타산하여야 한다.

$$C_{\text{예}} = C_{\text{실}} \times k$$

여기서  $k$ 는 계획기간 변화될수 있는 잔고증감결수,  $C_{\text{예}}$ 는 해당 시기 국가예산돈자리자금규모이다.

계획기간에 변화될수 있는 잔고증감결수타산에서는 국가예산돈자리자금잔고의 변동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정도를 바로 타산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잘하여야 한다.

$$k = \frac{C_{\text{잔}}}{E}$$

여기서  $C_{\text{잔}}$ 은 일정한 기간(년도)의 잔고액실적,  $E$ 는 일정한 기간(년도)의 수입액실적이다.

무현금대부원천을 바로 타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잔고규모를 정확히 규정하는것이다.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잔고는 생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끊임없이 변동된다. 그것은 해당 기업소경영활동뿐만아니라 이 기업소와 거래관계를 맺고있는 일련의 다른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정형에 따라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수입 및 지출규모가 부단히 변동되기때문이다. 또한 이 돈자리잔고를 이루는 화폐자금원천의 다양성과 그 끊임없는 변동과도 관련된다.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잔고규모타산에서는 먼저 기초시기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잔고와 하루평균돈자리에 상시적으로 남아있게 될 자금규모를 규정하여야 한다.

여기에 계획시기 돈자리자금잔고규모와 변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을 옹게 고려하여 그 규모를 규정하여야 한다.

다음 계획작성당시 기관, 기업소돈자리에 남아있는 신용자원규모를 정확히 타산하여야 한다.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_{\text{기}} = \left[ C_{\text{실}} \times \left( 1 - \frac{C_{\text{대}}}{C_{\text{류}}} \right) \right] \times k$$

여기서  $C_{\text{기}}$ 는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잔고,  $C_{\text{대}}$ 는 일평균대부자금잔고실적,  $C_{\text{류}}$ 는 일평균류동자금잔고실적,  $k$ 는 잔고증감결수이다.

일평균대부자금잔고실적과 일평균류동자금잔고실적은 다음과 같이 타산할수 있다.

$$C_{\text{대}} = \frac{\sum_n \left[ \sum_{i=1}^{360} \left( \frac{\text{매일 대부금}}{\text{잔고실적}} - \frac{\text{매일 대부금}}{\text{회수실적}} \right) \right]}{360n}$$

$$C_{\text{류}} = \frac{\sum_n \left[ \sum_{i=1}^{360} \text{류동자금조성실적} \right]}{360n}$$

해당 시기에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잔고규모의 변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은 해당 년도 기관, 기업소에 대한 자금공급, 기관, 기업소에서의 생산의 증감, 생산주기, 경영활동개선전망 등이다. 그러므로 기관, 기업소돈자리자금잔고규모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정도타산에서는 지난 여러해동안의 자료에 기초한 동태계렬작성과 함께 그에 대한 분석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무현금대부원천타산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원천타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현시기 상업은행의 대부원천타산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현금대부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는것이다.

현금대부원천은 은행이 대부로 돌려쫄수 있는 일시적유헤현금이다.

이로부터 현금대부원천규모의 정확성은 은행에 집중된 유헤현금중에서 대부로 돌려쫄수 있는 일시적유헤현금의 규모를 어떻게 정확히 규정하는가에 달려있다.

만일 현금대부원천을 정확히 타산하지 못하여 실지 규모보다 과대평가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금이 류통에 나가게 되므로 통화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되며 반대로 현금대부원천을 정확히 타산하지 못하여 실지 규모보다 과소평가되는 경우에는 조성된 유헤현금예비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화폐류통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유헤현금을 최대한 경제건설에 동원리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현금대부원천을 타산하여야 한다.

현금대부원천규모는 일정한 기간 매일 은행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를 구하고 그것을 단순산수평균하는 방법으로 타산할수 있다.

일정한 기간 은행에 조성된 대부원천을 타산하는 목적은 타산시점에서 대부원천이 얼마나 조성되어있었는가를 규정짓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매일 은행에 항시적으로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를 타산하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일정한 기간 은행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는 일정한 기간 매일 은행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의 류계적인 합계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 매일 은행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의 평균값으로 규정되게 된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 매일 은행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동되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은행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가 일정한 기간 매일 은행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의 평균값으로 규정되는 조건에서 가장 평균적인 대부원천규모를 도출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가장 평균적인 대부원천규모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규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을 많이 장악하는것이 필요하다.

오늘 은행들의 업무활동을 놓고보면 은행에 매일 조성된 실제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유헤현금의 규모를 정확히 관측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

은행업무의 정보화가 실현되고 콤퓨터에 의하여 매일 은행업무를 마감하면서 은행의 모든 화폐자금의 잔고와 류동고를 반영한 화폐류통균형표가 작성되고있다.

일정한 기간 실적자료에 기초하여 은행돈자리(저금돈자리, 기업소현금돈자리)에 매일 조성된 대부원천을 평균하는 방법은 현금대부원천규모타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된다.

일정한 기간 은행에 조성된 현금대부원천규모를 타산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Q_n = \frac{\sum_{i=1}^n (x_i + y_i)}{n}$$

여기서  $Q_n$ 은 일정한 기간 은행에 조성된 현금대부원천규모,  $x_i$ 는 일정한 기간  $i$ 째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  $y_i$ 는 일정한 기간  $i$ 째일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  $n$ 은 일정한 기간(360일, 180일, 90일, 30일)이다.

현금대부원천규모를 옳바로 규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일정한 기간 매일 저금돈

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를 정확히 타산하는것이다.

일정한 기간 매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는 일정한 기간 매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유휴화폐자금전날잔고에서 매일 지출된 유휴화폐규모를 더는 방법으로 타산할수 있다.

매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를 규정함에 있어서 매일 지출된 유휴화폐규모를 고려하는것은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유휴화폐자금중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되는 유휴화폐가 대부원천에 포함될수 없는것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대부금이 지출되려면 그만큼 유휴화폐가 계약기간동안 돈자리에 원천적으로 매일 존재하고있어야 한다.

여기서 유휴화폐가 돈자리에 매일 존재하고있어야 한다는것은 시간적으로 놓고볼 때 매일 은행업무시간 전기간 지출된 대부금규모에 해당하는 유휴화폐가 돈자리에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출된 대부금에 맞먹는 유휴화폐가 매일 은행업무시간 전기간 돈자리에 원천적으로 존재하고있어야 원천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화폐가 류통에 존재하는 시공간적특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만일 매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을 전날잔고에서 지출을 덜고 수입을 더하는 방법으로 타산하고 그에 기초하여 대부금을 지출한다고 가상하면 시간적으로 대부원천이 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천이 없는 대부금이 이미 지출되어 류통에 존재하게 하는 시공간적특이 조성되게 된다.

그것은 지출된 대부금은 매일 은행업무 첫 시간부터 마감시간까지 전기간 지출되어 있는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저금돈자리에 들어오는 수입금은 은행업무마감시간에야 최종적으로 종합되어 돈자리잔고에 반영되며 대부원천으로 확정되기때문이다.

이로부터 매일 저금돈자리에 들어온 저금수입금은 그것이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유휴화폐잔고에는 포함될수 있으나 매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에는 포함될수 없게 된다.

매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을 타산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x_i = (a_{i-1} - b_i), (i = \overline{1, n})$$

여기서  $x_i$ 는  $i$ 째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  $a_{i-1}$ 은  $i-1$ 째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유휴화폐자금규모(전날잔고),  $b_i$ 는  $i$ 째일 저금돈자리에서 지출된 유휴화폐자금규모(상시지불준비금),  $n$ 은 일정한 기간 (360일, 180일, 90일, 30일)이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 매일 저금돈자리에 조성된 유휴화폐자금전날잔고와 저금돈자리에서 매일 지출된 유휴화폐자금규모는 화폐류통균형표의 저금돈자리의 전날잔고와 대방류동고를 보고 알수 있다.

일정한 기간 은행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를 옳바로 규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일정한 기간 매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를 정확히 타산하는것이다.

일정한 기간 매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는 일정한 기간 매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유휴화폐자금전날잔고에서 지출된 유휴현금을 더 다음 여기에 이미 준 대부금잔고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타산할수 있다.

일정한 기간 매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미 준 대부금잔고를 공제하는것은 이미 준 대부금잔고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

된 유희화폐자금속에 포함되어 대부원천으로 타산될수 있는것과 관련된다.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자금속에는 기업소들에서 받아들인 현금수입금뿐만아니라 대부형태로 들어온 현금도 포함될수 있다.

여기서 대부형태로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들어간 현금은 예산체계에 따라 동원된 화폐자금인것이 아니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와 저금돈자리에서 일시적으로 놓고있는 유희화폐자금을 동원한것이다.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을 타산하는 방법을 공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y_i = (C_{i-1} - d_i) \left( 1 - \frac{q_i}{p_i} \right), (i = \overline{1, n})$$

여기서  $y_i$ 는  $i$ 째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  $C_{i-1}$ 은  $i-1$ 째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유희화폐자금규모,  $d_i$ 는  $i$ 째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서 지출된 유희화폐규모,  $q_i$ 는  $i$ 째일 류통에 지출되어있는 대부금(현금),  $p_i$ 는  $i$ 째일 기관, 기업소들에 조성된 현금총액,  $n$ 은 일정한 기간(360일, 180일, 90일, 30일)이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 매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유희화폐자금전날잔고는 화폐류통균형표에 반영된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계시의 전날잔고를 보고 알수 있다.

기초년도 매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유희화폐자금의 전날잔고를 고려하는것은 우선 현행은행업무에서 매일 업무마감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화폐자금의 잔고를 계산하므로 그날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잔고만이 다음날 은행업무의 기초자료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또한 결제업무질서상 당일업무에서 자금지출규모는 전날업무마감에서 확정된 돈자리잔고액을 초과할수 없는것과 관련된다.

일정한 기간 매일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에서 지출된 유희화폐자금규모는 화폐류통균형표에서 기관, 기업소현금돈자리계시의 차방류동고금액을 보고 알수 있다.

일정한 기간 매일 류통에 지출되어있는 대부금은 화폐류통균형표에서 대부금계시의 잔고를 보고 알수 있다.

일정한 기간 매일 기관, 기업소들에 조성된 현금총액은 매일 은행에 현금돈자리를 개설한 개별적기업소들이 조성한 모든 현금을 종합하는 방법으로 타산할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은행에 조성된 현금대부원천규모는 일정한 기간 매일 저금돈자리와 기업소현금돈자리에 조성된 대부원천규모를 구하고 그것을 단순산수평균하는 방법으로 타산할수 있다.

## 2.2. 대부원천의 합리적리용

상업은행들이 대부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기관, 기업소들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활성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대부원천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대부대상을 올바르게 규정하는것이다.

대부대상은 자금이 모자라게 되는 원인과 자금의 용도를 규정한다. 다시말하여 자금이 무슨 리유로 모자라며 대부를 받아 어디에 쓰겠는가를 규정한것이 대부대상이다.



기업체들에서 자금이 모자라는 원인은 각이하다. 원료, 자재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 자금이 모자랄수도 있으며 생산된 제품을 제때에 팔지 못하여 돈이 모자랄수도 있다. 그리고 생산공정을 개진하거나 새로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이 모자랄수도 있다.

대부대상을 규정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어디에 쓸 자금을 대부로 받으려고 하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밝히는것과 함께 대부담보가 정확한가 하는것을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대부대상이 되자면 자금이 모자라는 원인과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하는것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뿐아니라 원금과 리자지불담보가 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대부가 이루어지자면 대부대상과 반환담보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대부대상이 규정되어도 반환담보가 없으면 대부대상이 될수 없으며 대부는 이루어질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부금반환담보는 대부대상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대부원천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부규모를 옳바로 규정하는것이다.

대부규모를 옳바로 규정하는것은 자금의 랑비를 없애고 자금의 순환을 촉진시킬뿐아니라 자금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모자라는 자금에 대하여 대부를 주는것은 기관, 기업소의 경영활동을 자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기업관리를 잘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대부규모를 정확히 규정하고 실제적인 수요에 맞게 대부를 주는것은 자금을 절약적으로 리용하고 기업관리를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대부규모는 우선 모자라는 자금총액에서 반환담보가 되어있는 자금규모로 규정하여야 한다.

모자라는 자금을 대상으로 전액 대부를 주는 경우에는 기업소의 결함으로 모자라는 자금을 보상해주는것으로 될수 있으며 대부금의 반환담보가 약해질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규모규정에서는 모자라는 자금총액에서 반환담보가 없는 자금몫은 제외하여야 한다.

대부규모는 또한 당면하게 꼭 필요한 자금규모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업소류동자금의 회전상특성에 맞게 대부를 주는것으로서 자금의 절약적리용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기업소류동자금은 생산단계와 류통단계를 차례로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순환한다.

기업소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당면하게 꼭 필요한 자금을 대부로 주는것은 대부금의 효과적인 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에 모자라는 류동자금을 대부규모로 규정하고 대부를 주어야 대부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세울수 있으며 자금의 순환을 더욱 촉진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당면하게 꼭 필요한 자금을 대부규모로 규정하고 대부를 조직하는것은 재생산의 요구에 맞게 자금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대부원천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부리자률을 옳바로 규정하는것이다.

대부리자률을 옳바로 규정하는것은 기업소들의 일시적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화폐의 지나친 방출을 막고 대부의 통제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여기에서는 리자률규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리자률을 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대부리자률규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리자률을 규정하여야 대부를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융자적방조와 통제수단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화폐의 원활한 류통을 보장할수 있다.

대부리자률규정에서는 우선 저금 또는 예금리자률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금 또는 예금리자률수준을 고려하여 대부리자률을 규정하는것은 은행의 대부리자률규정에서 나서는 일반적요구이다.

대부리자률이 저금 또는 예금리자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은행자원을 감소시킬수 있다. 특히 상업은행들이 금융기관 채산제로 운영되는 조건에서 대부리자수입으로 저금 및 예금리자를 비롯한 경영비를 충당하고 일정한 리득을 볼수 있도록 리자률을 옹게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리자률은 저금 및 예금리자률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대부리자률규정에서는 또한 대부받는 단위의 신용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부받는 단위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대부리자률을 정한다는것은 기관, 기업소들의 대부금반환기간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대부리자률을 대부금의 반환기간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하는것은 대부금을 비롯한 경영자금의 효과적인 리용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이다. 이 요구는 대부금리용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된다. 대부금은 그 리용에서 다른 자금과는 달리 효과성을 높일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대부가 원금반환과 리자지불을 전제로 하는 자금운동형태이기때문이다.

대부금리용의 경제적효과성은 대부금리용의 결과에 얻어진 화폐수입에서 제정된 기간내에 원금반환과 리자지불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충적인 자금지출에 돌려질수 있는 자금원천이 조성되는데서 나타난다. 다시말하여 대부금리용의 효과성은 대부금을 리용하여 이루어진 화폐수입으로 원금과 리자를 바치고 생산확대, 제품의 질제고, 생산공정의 기술적개조 등에 일정한 몫을 돌릴수 있게 되여야 한다.

대부금리용의 효과성이 이 수준아래로 떨어질 때에는 기업체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대부금을 제정된 날자에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

대부금리용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은행은 대부를 통한 자금보장에서 통제를 강화한다.

대부리자률을 대부금반환기간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하는것은 대부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요구이다.

대부원천은 일시적유희화폐자금이며 서로 다른 소유의 화폐자금이다.

대부원천이 일정한 규모로 제한되어있고 그것이 서로 다른 소유의 자금인 조건에서 대부자원의 합리적리용은 대부금의 정확한 반환에 의해서만 담보될수 있다. 그러므로 상업은행은 대부리자률을 대부금의 반환기간준수에 따라 낮게 또는 높게 정하여 대부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부원천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부기간을 옹바로 정하는것이다.

대부기간이 길면 대부를 받는 단위에서는 대부금리용의 효과성이 크지만 대부를 주는 은행에서는 대부자원의 회전이 떠지고 그에 따라 소득도 적게 생길뿐아니라 동원된 유희화폐자금의 리용에서 효과성이 떨어질수 있다.

한편 대부기간이 짧으면 대부를 받는 단위에서는 대부금리용의 효과성이 크지 못하지만 은행은 자원의 회전을 촉진시켜 많은 신용거래자들을 대상으로 대부를 줄수 있으며 나아가서 자원리용의 효과성이 높다.

대부기간은 동원된 자금의 규모에 맞게 정하면서도 저금기간에 따라 정하는것이 합

리적이다.

현시기 저금에서는 준비저금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대부기간을 그에 맞게 주는것이 합리적이다.

### 3. 결론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 총력을 집중해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금융관리를 개선하여 기업체들에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상업은행들은 금융기관 채산제의 요구에 맞게 대부원천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기관, 기업소들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생산을 정상화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대부원천의 계획화사업을 보다 개선하고 대부리자률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적용하여 기업체들과 생산자들이 높은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가능한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고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적극 창조해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대부원천, 유희화폐자금, 대부리자